

정보통신 용어해설

정보통신 용어해설

TTA에서는 「제4판 정보통신용어사전(2000년말 발간)」의 신규용어를 일부 발췌, 본 면에 정기적으로 수록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정보통신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또한 TTA 홈페이지(<http://www.tta.or.kr>)를 방문하시면 「제4판 정보통신용어사전」, 제4판 이후의 신규 수집용어, 주요 표준화 용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게재된 용어들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거나 신규용어를 제안하시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031) 724-0113 담당 : 송진영/sjy@tta.or.kr

홈 네트워킹

home networking [망] [표준]

PC, 휴대 전화, 디지털 텔레비전,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게임기 등 가정 내의 정보기기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형성해 디지털 데이터를 공유하고 광대역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구성. 협의의 홈 네트워킹은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의미하는 것이나, 광의의 개념으로는 정보기기 간의 통합 및 운영을 위한 S/W, 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홈 네트워킹은 내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홈 게이트웨이, 전화선/전력선/무선 등의 가정내 통신망, 정보기기들을 제어하며 상호 연동시키는 중간 웨어, 홈 네트워킹 기능이 추가된 정보기기 등으로 구성된다.

전자 화폐(電子貨幣)

electronic money, e-cash, e-money [관] [표준]

일정한 화폐의 가치를 IC 카드나 PC 등에 디지

털 데이터 형태로 저장하였다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상품 구매/운임 지불을 할 수 있는 전자적인 지급 수단. 기본적으로 2가지 형식이 있는데, 하나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현금 대신 지불하는 수단과 다른 하나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지불 수단이다. →디지털 현금

고속 이더넷(高速-)

fast ethernet [망] [표준]

이더넷 기술을 계승한 것으로 전송 매체 상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100Mbps로 고속화한 LAN. 1992년 IEEE 802 위원회에서 고속 이더넷의 표준화 작업 시에 10Mbps의 표준 이더넷에 대해서 '고속 이더넷'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100Mbps의 이더넷에는 복수의 규격이 있고, 규격마다 각각의 고유 명칭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 명칭을 사용한다.

아바타**avatar [컴]**

인터넷 가상 세계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고대 인도에서 신의 화신을 지칭하는 말로서,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자를 대신하는 일종의 자기 상징 캐릭터이다. 예를 들어, 유니콘, 파랑새, 사이버 인형, 기타 신비적이고 창조적인 화신들을 사용한다.

닷넷**.Net [서]**

확장성 생성 언어(XML)와 단순 객체 접근 통신 규약(SOAP)을 기반으로 한 통합 웹 서비스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통합 인터넷 전략으로 나온 것으로,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정의해주는 사실상의 표준인 XML을 사용하여 서비스와 콘텐츠가 상호 작용해 접속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이동 단말기로도 각종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닷넷 플랫폼은 서비스를 구현하고 운용할 수 있는 하부 구조 및 도구이며, 새로운 종류의 스마트 인터넷 장비를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시스템과 조직간의 서로 상이한 시스템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연결하는 윈도우 닷넷과 같은 기술, 사생활 보호 및 인증 도구에 대한 보강 버전, 실시간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서버 소프트웨어 기술, SQL 서버의 차세대 버전, 윈도우 PC를 홈 엔터테인먼트로 바꾼 윈도우 XP 미디어 센터 에디션, 강력한 MSN의 패스트포트와 닷넷 알림 서비스 등의 빌딩 블록 서비스 기능, 스웸 메일 보호 기능, 온라인 보안 및 안전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ebXML**e-business Extensible Markup Language [관]**

전자 상거래를 위해 UN산하 UN/CEFACT와 민간 비영리 IT 표준화 컨소시엄인 OASIS가 개발한 XML 기반의 전자 상거래 분야의 개방형 표준. 모든 거래 당사자들이 상호 운용성과 일관성이 확보된 환경하에서 안전하게 전자 상거래 정보를 전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기반 구조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1999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01년 5월 1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단순한 비즈니스 문서 교환을 가능케 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로서의 역할 둘째, 개별 사업자간에 동일한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요소들을 핵심 구성 요소로 정의한 후 참여자 자신이 실제 필요한 부문에 대한 독자적인 구축 셋째, 산업별 저장소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저장소의 운영 등이다.


기업 자바빈(企業-)**Enterprise JavaBeans [EJB] [컴]**

서버/클라이언트 모형을 갖춘 네트워크의 서버 측에 운용되는 자바 언어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컴포넌트 작성용 구조. 클라이언트에게 빈(Beans)이라 부르는 프로그램 컴포넌트를 분배하는 자바빈(JavaBeans) 기술로 되어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 컴포넌트의 변경이나 추가 시에 개별 컴퓨터를 업데이트 하지 않고 서버에서 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JB 컴포넌트는 복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재사용 할 수 있는데,

EJB 컴포넌트 수행을 위해서는 컨테이너라 부르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확장성 하이퍼텍스트 생성 언어 (擴張性-生成言語) Extensible Hypertext Markup Language [XHTML] [컴]

하이퍼텍스트 생성 언어(HTML) 버전 4를 확장성 생성 언어(XML)를 적용하여 재구성한 것.

웹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고 다양한 목적에 사용되는 확장성과 이동성이 강한 언어이다. 새로운 요소와 속성을 정의 또는 추가할 수 있으나 HTML 4의 요소와 속성으로 인해 마치 HTML 파일처럼 보이며, HTML 버전들과 관계없이 새로운 태그와 속성을 정의할 수 있어 수학적 표현, 벡터 그래픽, 멀티미디어 등의 새로운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소형 장비에 적합하게 소형 메모리로 웹 페이지를 소형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XML 문서, 특정 부분 암호화 가능해진다.

웹을 주도하고 있는 W3C에서는 웹 서비스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의 표준을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XML 데이터 및 문서 암호화를 위한 두 가지 초안을 제시했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는 XML 인크립션 신택스(Encryption Syntax)와 XML 시그니처를 위한 디크립션 트랜스폼에 대해 2가지 내용을 제안했다. 이 2가지의 프로토콜이 통과되면 웹 사이트와 웹 서비스 회사들은 민감한 내용의 데이터를 매우 안전하게 받고 보낼수 있게 된다. 물론 XML 문서를 암호화하는 방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이번 W3C에서 제안한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XML 형태 문서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 번호와 같이 특정 부분이나 특정 내용을 암호화하는 등의 작업이 가능해지게 된다. W3C XML 인크립션 워킹 그룹의 조셉 리글은, “XML 인크립션은 XML 서류의 특정 부분들에 대해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것은 웹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있어 매우 중요한 표준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제공할 것이며 당신이 암호화한 것의 신택스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한 과정을 뒤집어 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디크립션 트랜스폼에 관한 내용은 해당 서류에 서명할 당시에 서류의 어느 부분이 암호화됐는지, 혹은 해독이 됐는지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제안은 각각의 사람들마다 제각기 다른 시간에 서류의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판매업체에서 제품의 종류와 가격대의 목록에 대해 서명을 하고 난 후에 구매업체가 암호화된 신용카드 번호에 대해 서명할 수 있다. 디크립션 트랜스폼은 서류의 내용이 점점 추가되고 삭제됨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맨 처음 서명됐을 당시에 ‘롤백’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W3C의 이번 암호화 표준 작업은 웹 서비스 트렌드에 맞는 표준을 만들고자 하는 좀더 큰 목표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금년 초에 W3C가 웹 서비스라는 기회를 다 놓치고 있다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그 이후 W3C는 웹 서비스에 관련된 초안들을 광범위하게 내놓고 있다.